



미 증시, 애플 및 테슬라발 호재 등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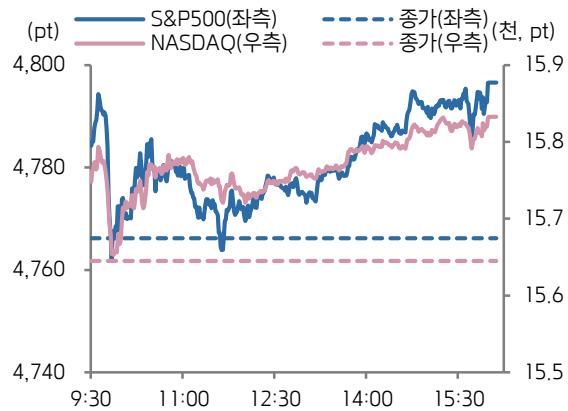
미국 증시 리뷰

3일(월) 미국 증시는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 4 분기 인도량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(+13.5%) 주가 급등, 연말 판매 호조에 따른 애플(+2.5%)의 장중 시가총액 3 조달러 돌파 등 대형 테크 대장주들의 호재 출현 힘입어 상승 마감. 작년 연말 수급상 매도 압력 완화, 오미크론 정점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1 월 효과에 기대감도 확대. 애플은 연휴기간 하드웨어 판매 호조 소식에 장중 최초로 시가총액 3 조 달러를 돌파, 테슬라는 4 분기 판매량 서프라이즈(30.9 만대 vs 예상 26.7 만대)로 급등하며 지수 상승 견인(다우 +0.68%, S&P500 +0.64%, 나스닥 +1.2%, 러셀 2000 +1.21%).

업종별로 에너지(+3.1%), 경기소비재(+2.8%), 금융(+1.2%) 등이 상승, 소재(-1.4%), 헬스케어(-1.0%), 부동산(-1.0%) 등이 하락하며 차별화는 지속됨.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유럽 피크아웃 가능성과 고톨립 전 FDA 국장의 2 주내 미국 뉴욕주의 코로나 확산 피크 아웃 가능성 발언, FDA 의 12~15 세 화이자의 백신 부스터샷 사용 승인 등 긍정적인 소식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짐. 보잉(+3.3%), 아메리칸 에어라인(+4.4%), 카니발(+6.4%) 등 여행 관련주들은 강하게 반등했고 반도체 지수(+2.1%) 견조하게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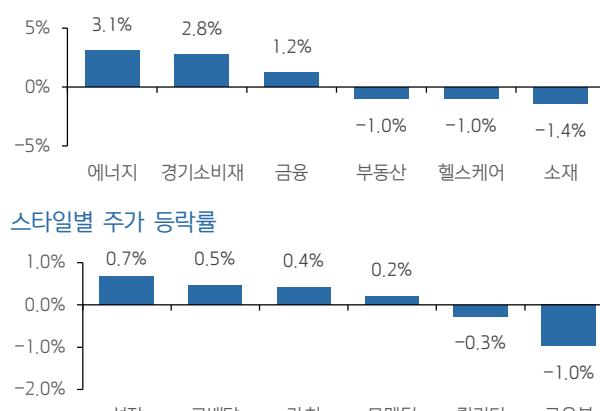
종목별로 웰즈파고(+5.7%)는 바클레이즈의 투자의견 상향 조정, 페이팔(+3.4%)은 BMO 의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 보고서 여파로 각각 큰 폭 상승. 바클레이즈는 금리 인상 환경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웰즈파고 추천. AMD(+4.4%)는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섹터 탑픽을 선정 받으며 큰 폭 상승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	
주식시장	지수	가격	외환시장			
			변화	지수	가격	
S&P500		4,796.56	+0.64%	USD/KRW	1,191.81	+0.16%
NASDAQ		15,832.80	+1.2%	달러 지수	96.23	+0.59%
다우		36,585.06	+0.68%	EUR/USD	1.13	-0.63%
VIX		16.60	-3.6%	USD/CNH	6.37	+0.27%
러셀 2000		2,272.56	+1.21%	USD/JPY	115.35	+0.23%
필라. 반도체		4,027.22	+2.05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	16,302.79	-1.06%	국고채 3년	1.852	+5.7bp
유럽, ETFs				국고채 10년	2.330	+7.5bp
Eurostoxx50		4,331.82	+0.78%	미국 국채 2년	0.774	+4.2bp
MSCI 전세계 지수		754.83	-0.06%	미국 국채 10년	1.632	+12.1bp
MSCI DM 지수		3,231.73	-0.16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	1,232.01	+0.76%	WTI	76.05	+1.12%
MSCI 한국 ETF		77.86	-0.01%	금	1802	-1.4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01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72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4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96.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테슬라발 호재에 따른 전기차, 2차전지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
2. 현대차, 기아차의 12 월 양호한 판매실적에 따른 자동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화
3. 장중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12 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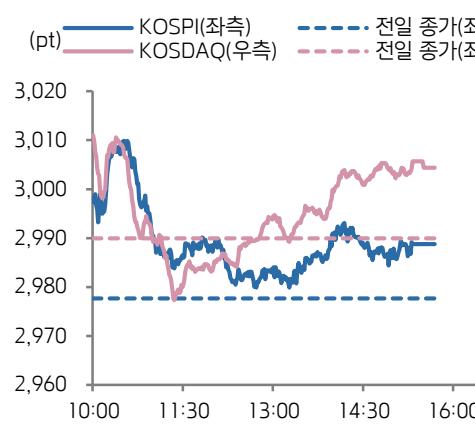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테슬라 주가 급등,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 3 조달러 최초 돌파, (오미크론 확산에도) 경제 정상화 전망 등 여러 호재로 미국 증시는 새해 랠리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. 또한 미국과 유로존의 Markit 제조업 PMI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12 월 들어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시켜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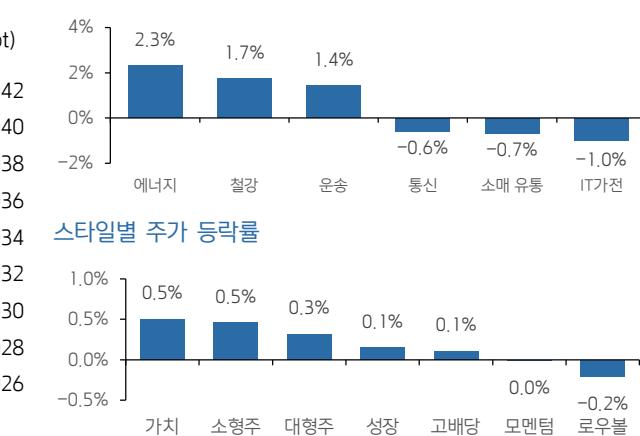
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,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. 그러나 현재 전쟁 선공의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측에서는 대화를 통한 목적달성(NATO 의 동유럽 국가 영향 제한 등)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불확실성은 월 중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지만,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.

금일 국내 증시는 1,190 원대를 재진입한 단기적인 원/달러 환율 상승 부담에도 미국발 훈풍 속 자동차, IT 등 개별 호재성 재료가 있는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4 분기 인도량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발 호재이외에도, 12 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외 시장 위주로 양호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전기차 포함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.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테크놀러지(+2.8%), AMD(4.4%) 등 반도체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. 다만, 외국인 수급과 밀접한 환율이 단기적인 부담 영역에 있음을 감안 시 이들의 주가 상단은 수급 상 요인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임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Quante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